

등등 엄마 오리
못 물 위에 등등

등등 아기 오리
엄마 따라 등등

풍덩 엄마 오리
못 물 속에 풍덩

풍덩 아기 오리
엄마 따라 풍덩



불자 세상보기

이 지 엽
시인

병아리가 장난감인가?

‘갑자꽃’으로 유명한 권태웅(1918~1951) 시인의 ‘오리’를 읽으면 한가로운 연못에 떠 있는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의 모습이 그려진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시인의 눈에 비친 오리 가족의 풍경은 그 시대 어린이들에게 한 없이 맑고 정겨운 선물이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있을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알뜰달뜰하게 염색한 병아리들을 주고받는다는 보도가 있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난하고 열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어미 닭을 따라 앞마당과 외양간, 미니리깅을 쫓종거리며 다니는 노란 병아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을 어른들이 특별히

를 위해 그 어린 솜털에 화공약품을 잔뜩 묻혀서 판다는 것 자체가 한 편의 ‘지옥도’다. 물론 염색된 병아리를 사서 노는 아이들에게도 병아리는 장난감 이상의 의미가 없을 테니 그 역시 지옥의 한 장면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고귀한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다 못해 아이들에게 장난감 대용으로 인식시키는 지옥 말이다. 학교 앞 문구점 구석진 곳에 비치된 게임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아이들, 책가방을 뺨개치고 인터넷에 접속해 폭력으로 일관되는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에게서 인간 세상의 밝은 미래를 차마 내다볼 수가 없다. 참담한 일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된다. 언젠가 “이 시대의 어른들은 생존을 위한 전사 같다”는 말을 들었다. 삶이 전쟁이란 말이다. 어른들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안 아이들은 도덕이 썩어, 생명이 썩어, 인간이 썩어지고 모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인과라는 깨달음을 머릿맛이 솟아올랐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세상에는 존귀한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존귀성은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존귀해지는 것이 스스로 존귀해지는 물건은 없는 것이다. ‘생명’은 어떤가? 누가 생명의 귀함과 천함을 따질 수 있는가? ‘생명’의 존귀성은 인간의 가치부여마저 초월하는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지닌 생명은 시작과 끝이 없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생명은 두고 어찌 우열과 경중을 따질 수 있겠는가. 중국 당나라때 남전(南泉) 선사가 제자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서슴없이 고양이 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선가에 널리 알려진 일화다. 그는 단지 고양이 목만 벤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집착’이라는 병도 함께 잘랐던 것이다. 생명을 죽여 생명을 살리는 선사의 활발발하고 적극적인 가르침은 오늘날 흐트러진 생명관을 정돈해 주는 약이다. “어제의 내가 오늘 나로구나” 하는 선사들의 의지는 일체 생명이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던, 시작과 끝을 논할 수조차 없는 그 절대적 존귀성이 지금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 생명의 존귀성을 알뜰하게 가르쳐도 모자랄 세상에서 생명과 장난감을 동급으로 가르쳐 버리는 어른들이여, 그 업보가 무섭지 않은가?

불자의 눈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훼손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일본 불교지도자의 한 사람인 한일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6월 14일 일산 수덕사에서 열린 ‘제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평화기원법회’에 참석해 사과발언을 했다. 그동안 일본의 지식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반성·사과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러나 일본 불교계가 과거의 침략에 대해 사과·참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종교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해외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쇼겐 스님의 공식사과는 의미가 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 때문에, 사실 이런 반성과 사과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우리가

日 불교계의 ‘참회’ 확산되길

일본의 정치인 혹은 우익 세력이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진지하게 따지려면 합리적인 인사들의 사과와 반성도 경청하는 균형잡힌 태도가 필요하다. 쇼겐 스님은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참회(懺悔)의 마음과 함께 다시 불미한 일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는 진지한 반성문을 발표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일본인, 혹은 일본 불교도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불교도로서’ 반성 했으며, 사실적 차원에서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참회(懺悔)의 마음’을 밝혔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이 말한 대로 ‘양국의 불교도들이 원한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한국 불교계를 향해 발언하기에 앞서, 자국 정부를 향해 과거사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의 사과와 반성 역시 ‘우리는 무수히 사과하고 반성했다’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변명의 근거로 활용될 뿐이다. 과거사의 족쇄를 풀지 않고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건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영원한 진리이다. ■ 구승희(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만남
만일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열어 모인다면, 만일 사람들이 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으리라. <중야합 우바새경>
오래전 ‘만남’이라는 노래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 있어.’라고 시작하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곤 했다. 지구 유일의 분단국가 한반도에도 다시 ‘만남’이라는 파스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14차 남북장관급 회담 이후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만남과 대화’가 단절된 지 1년만이다.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17일 평양에서는 성대한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고, 서울에서는 21일부터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부와 민간대표단, 해외동포들까지 함께 했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다. 물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남측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대표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공동 8·15행사가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고 한다.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덧 남북이 분단 된지 6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너무나 길었던 단절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65일 계속 만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 유철주(주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봉사하는 삶을 살자
봉사는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 봉사하는 분들이 내 자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목욕봉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분들의 고통과 좌절로 상처난 마음까지도 씻어 드리는 것이다. 목욕봉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가지 않은 일주일 내내 물 구경 한번 못하는 분도 있다. 목욕봉사 하는 곳의 환경이 대부분 그렇다. 환자들을 일주일 내내 우리들을 기다린다. 우리가 가면 그 누구 보다 제일 많이 반가워한다고 간병인 보살이 귀찮을 한다.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반겨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욕봉사를 받는 환자들은 뇌졸중, 치매노인,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분들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인 것이다. 깨끗하게 수건과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 다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바꿔 입고 나면, 환자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하게 변해 있다. 목욕봉사를 하다보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몸은 피곤해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그래도 말하고 표현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진정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치료 받는 것보다 목욕봉사 한번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다. 목욕을 하고 난 후 그 시원함과 개운함 때문이라. 이러니 어찌 목욕봉사 기도봉사를 하루라도 빠질 수 있겠는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더욱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진정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나를 조금만 희생시켜 내 이웃을 돕는 일, 더욱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 병원목욕봉사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개인을 위한 수행도 필요하지만 내 이웃들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한 채 내만을 위한 수행은 욕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다 나오면 나의 병도 따라 나올 것이다”라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불타는 지옥도 마다하지 않는 지장보살의 크나큰 원력처럼 진정한 불자라면 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깨달음에 있다면 불교의 정신은 자비심에 있다. 배우고 선정하고 봉사하자. 도사권(영남불교대 병원기도목욕봉사단)
황우석 교수 연구 동기 칭찬받아야
정진석 대주교(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와 황우석 교수(서울대)가 만나 나누는 대화를 보고 그 동안 궁금했고 문제의 초점이 됐던 베이비시절도 수년간의 ‘생명체 여부’의 의문이 풀렸다. 난지와 정자의 결합이라는 수정의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생명체이전의 것임이 황 교수의 입으로 확인된 것이다. 베이비시절은 자신의 뿌리(根源)인 난치 병환자의 몸에 다시 ‘포용’돼, 그의 병을 치료시켜주고, 세포 자신도 함께 성장 생존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난치 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황 교수의 연구 동기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curlywho(웃다뉴스)
신도가 필요없는 사찰?
호남에 소재한 S사. 이 아름다운 사찰을 나는 지난 주말에 우리절 청년회원과 함께 참배했다. 산문에서 험한 얼굴로 입장권 끊으라는 소리부터 했다. 청년회원임을 밝혔는데도, 또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순간 기분이 뭐라 형용키 어려웠다. 절에 들어가서 보니 종무소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예불시간에는 스님 몇 명뿐 신도라고 찾아볼 수 없었다. 입장료에 만 신경을 쓸 뿐 신도들을 위한 편의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아마도 조만간 신도 없는 절이 전국에 산재하지 않을까. 돌이아님(웃다뉴스)

‘연대’ 민영 심 민 섭
국립공원을 사랑하자!
국회의원
사랑하는 만큼 수행환경도...
심 민 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피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 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들이 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운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심마니 토종 오가피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중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중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접 현종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47-9114
HYUN PUNG F&B CO.LTD